



미 증시, 부채한도 하원 통과, 인플레이 둔화 등으로 강세

미국 증시 리뷰

1 일(목) 미국 증시는 5 월 ISM 제조업 PMI 쇼크에도, 부채한도 법안 하원 통과, ISM 제조업 가격지수 급락, ADP 임금 증가율 하락 등 인플레이 둔화, 엔비디아(+5.1%) 등 AI 관련주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0.5%, S&P500 +1.0%, 나스닥 +1.3%). 업종별로는 유틸리티(-0.8%), 필수소비재(-0.1%)를 제외한 기술(+1.3%), 산업재(+1.3%), 소재(+1.2%) 등 전업종이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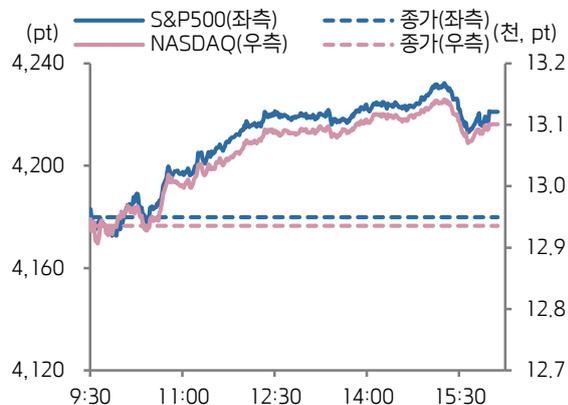
미국의 5 월 ISM 제조업 PMI 는 46.9로 전월(47.1) 및 예상치(47.0)를 모두 하회. 세부항목 상으로 신규주문(4 월 44.9 -> 5 월 42.6), 가격(53.2 -> 44.2) 등이 급격한 반면, 생산(48.9 -> 51.1), 고용(50.2 -> 51.4) 등은 상승. ISM 측은 미국 제조업황이 위축세를 보이고 있으며, 업황 위축 속도도 시간이 지날수록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

주간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3.2 만건으로 전주(23.0 만건)에 비해 증가했으나, 컨센(23.5 만건)은 하회. 5 월 ADP 민간부문 신규고용은 27.8 만건으로 전주(28.1 만건)에 비해 둔화했으나, 컨센서스(17.0 만건)을 큰 폭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 대기업 고용이 감소했으나, 중간 및 중소기업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고용 증가세를 견인. 다만 임금 상승률은 6.9%(YoY)로 전월(6.7%)에 비해 둔화했으며, 이직자들의 임금 상승률도 12.1%로 전월(13.1%)에 비해 하락.

미 하원에서는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찬성 314 표, 반대 117 표로 가결. 해당 법안에는 '25 년 1 월까지 부채한도(현 31.4 조달러) 유예, '24 회계연도('23 년 10 월~24 년 9 월)까지 비국방 지출 동결 등이 포함. 향후 해당 법안은 상원 표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서 발효되는 구조이며, 상원에서는 X-date 인 6 월 5 일 이전에 부채한도 표결을 처리하기위해 패스트트랙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 시 표결은 6 월 2 일~4 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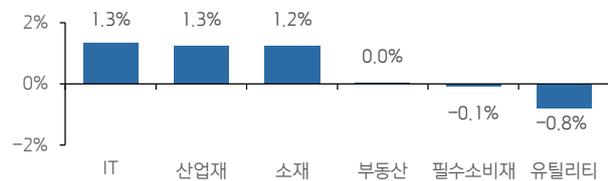
유로존의 5 월 소비자물가는 6.1%(YoY)로 전월 7.0% 및 컨센(6.3%)를 하회했으며, 근원 소비자물가도 5.3%로 전월(5.5%) 및 컨센(5.6%)를 모두 하회. 이처럼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날 공개된 ECB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대다수 위원들이 50bp 금리인상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의사록에서는 금리인상 폭을 축소하는 것이 인상 사이클이 중단된다는 시작 신호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69.17	-0.31%	USD/KRW	1,321.55	-0.32%
코스피 200	338.08	-0.31%	달러 지수	103.55	-0.74%
코스닥	863.78	+0.8%	EUR/USD	1.08	+0%
코스닥 150	1,320.81	+0.93%	USD/CNH	7.10	+0%
S&P500	4,221.02	+0.99%	USD/JPY	138.82	+0.01%
NASDAQ	13,100.98	+1.28%	채권시장		
다우	33,061.57	+0.47%	국고채 3년	3.480	+4bp
VIX	15.65	-12.76%	국고채 10년	3.550	+3bp
러셀 2000	1,767.94	+1.05%	미국 국채 2년	4.341	-6.2bp
필라. 반도체	3,506.74	+1.55%	미국 국채 10년	3.595	-4.8bp
다우 운송	13,880.17	+1.24%	미국 국채 30년	3.815	-4.6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57.61	+0.94%	WTI	70.1	+2.95%
MSCI 전세계 지수	653.02	+1.03%	브렌트유	74.35	+2.33%
MSCI DM 지수	2,800.56	-0.89%	금	1995.5	+0.68%
MSCI EM 지수	958.53	-1.22%	은	23.99	+1.7%
MSCI 한국 ETF	63.76	+1.56%	구리	371.1	+2.0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56%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78%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6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11.2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0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반등으로 인한 국내 반도체 및 AI 관련주 투심 회복 여부 2. 금리 동결 가능성 및 부채한도 협의안 통과 등 긍정적인 매크로 환경 3. 위안화 약세로 인한 중국 경기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부채한도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시장의 관심은 현지시간 6월 13일에 있을 FOMC 금리 동결 여부로 옮겨갔다고 판단.

미국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2023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은 하원 표결을 통과했고 상원 표결은 현지시간 2일에 이루어질 예정.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디폴트 시한인 5일 이전에 협상이 완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상황.

5월 ADP 민간고용이 전월보다 27.8만건(예상 17만건, 전월 29.1만건) 기록하며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 특히 어제 구인건수 세부내용과 마찬가지로 레저 및 접객, 건설업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건수 서프라이즈로 예견했던 결과라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으나 전일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현재 6월 FOMC 동결이 더 적절하지만 고용 보고서 결과를 확인하고 판단하겠다고 언급했고, FOMC 블랙아웃 기간 돌입 직전 마지막 경제지표 발표 및 연준위원 발언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고용보고서 결과에 대한 경계감은 높아질 것. 5월 비농업 고용자수 컨센서스는 19.5만건(전월 25.3만건)으로 형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이 4월 6.7%에서 6.5%로 둔화되었고, 예상치를 하회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가중시킨 5월 ISM 제조업지수(실제 46.9, 예상 47.0, 전월 47.1) 세부 항목에서 물가 및 재고 지수가 큰폭으로 감소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7월 금리 재인상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 내일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오히려 시장은 얕은 침체 가능성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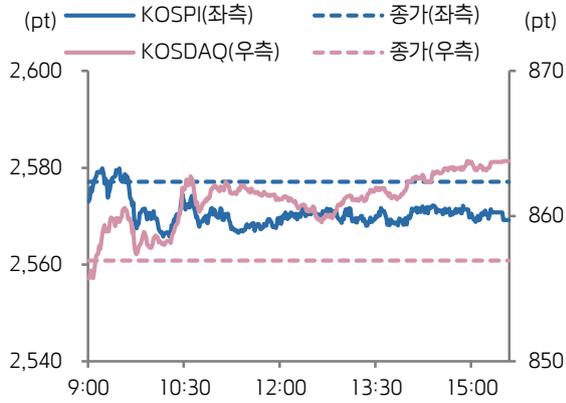
1일(목) 국내증시는 장중 부채한도 협의안 하원 통과 소식에도, 5월 수출입 컨센서스 하회, 전일 엔비디아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따른 반도체 업종 상승세 둔화 등으로 혼조세 마감(KOSPI -0.31%, KOSDAQ +0.80%)

금일에는 미증시에서 엔비디아(5.12%)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 금리 동결 기대감, 원/달러 환율 하락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 또한 중국 5월 차이신 제조업 PMI(실제 50.9, 예상 49.5, 전월 49.5)가 예상치를 상회,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경기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음을 시사하며 경기 부진 우려를 소폭 덜어주었다는 점 역시 긍정적.

한국 5월 수출은 YOY -15.2%(예상 -16.8%, 전월 -14.3%), 수입 YOY -14.0%(예측 -14.5%, 전월 -13.3%) 기록하며 8개월 연속 감소 중. 반도체 수출액은 YOY -36.2%로 10개월 째 감소하고 있으나, 월간으로는 증가세로 전환하며 저점 통과 기대감을 높임. 전일 반도체 업종이 장초반 약세 흐름 보이다 상승전환한 점을 감안할 때 하반기 주도주로서 힘을 잃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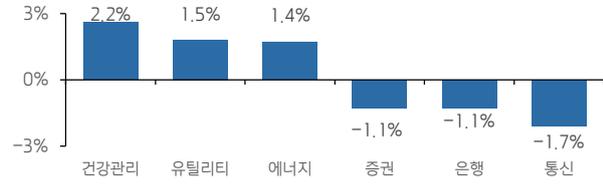
또한 자동차, 일반기계, 이차전지 양극재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 약세에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 특히 이번 미국 부채한도 협상안에서 IRA 관련 조항은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점에서 국내 이차전지 업종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할지 여부에 주목.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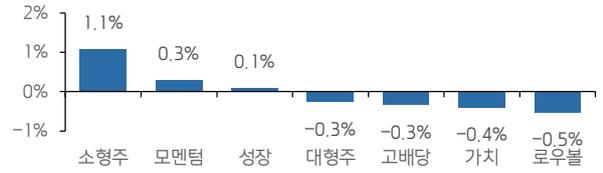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